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추진

“한국의 플럼빌리지 만들겠다”

인터뷰/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의정스님

‘禪건축’ 주제 국제세미나
동화사에선 간화선법회
단계적 수행프로그램 갖춰
간화선 세계화 초석으로



간화선은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단계적 수행프로그램도 준비한다.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을 주축으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과 함께 현대에 맞는 간화선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의정스님은 “틱낫한 스님의 플럼빌리지에는 연간 65개국 2만여 명이 수행을 한다”며 “3~4년 후 문경세계명상마을도 선수행을 대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세계를 찾아가니며 간화선을 주제로 한 법회도 열 것이다. 간화선에 대한 실감과 이해가 없으면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은 결국 우리가 정진만 하고 간화선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스님은 “간화선 법회를 요청하는 곳이면 장소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법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일 오후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국제세미나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이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의정스님의 기초발제로 시작해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뉴욕 윈다르마센터를 설계한 토마스 한라한(Thomas Hanrahan) 프렛대 교수와 영국 알란파워 건축설계사무소 대표인 알란 파워(Alan Power) 소장, 미나미 야스히로 일본 고쿠지칸대 교수, 스키 토모히로 나라문화재단연구소 연구원, 김계전 국민대 교수가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동국대 부설 사찰조경연구소장 홍광표 교수와 수좌 정명스님, 화광스님, 조성룡 성균관대 교수, 김용미 금성종합건축 대표, 구태서 LIDIA인 소장 등이 참여한다.

이들 위해 수좌 스님들과 함께 올 초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미국, 일본의 선센터 30여 곳을 돌리보고 현황과 수행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폈다. 의정스님은 “도량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곳이 화두를 참구하는 곳임을 알 수 있게, 미래 건축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불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건축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로라하는 건축가들이 참여해 세계명상마을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질 것으로 스님은 기대했다.

이현경 기자 eomaldo@ibulgyo.com

“서울시 1조7000억 받으려 줄속 개발”

한전부지 GBC계획 철회 요구

서울 강남의 대표사찰 봉은사가 한전부지에 추진중인 서울시와 현대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개발계획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줄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제차 표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심의 위원회에 GBC 개발계획 심의의 안전을 재상정함에 따라, 봉은사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주지 원명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 신도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열고 안전 보류를 촉구했다.

GBC 개발계획 심의의 안전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개발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환경, 교통, 문화재 등에 대한 영향 평가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봉은사는 최경주 동남권개발추진단장과의 면담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1조7000억원을 받기 위해 줄속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 시정에 대해 범불교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봉영 기자

원로회의, ‘원로회의법 개정안’ 결론 못 내려

총무원장 스님 “종헌 준수하는 선에서 사면 검토”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스님)가 지난 8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52차 회의를 열고 원로회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2017년 4월께 의장 밀운스님과 부의장 명선·원명스님 등의 의장단을 포함한 9명의 원로의원 스님들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회의 성원 문제 등을 미리 점검하고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원로회의법에 따르면 원로회의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고 있어, 의장

단 임기가 만료될 경우 회의 소집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기만료 후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는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기는 존속한다’는 현행 원로회의법을 놓고, 임기만료 후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했을 때 출석 원로의원 가운데 연장자의 사회 아래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

은 찾지 못했다. 원로회의 사무처 관계자는 “개정안을 두고 2시간 동안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문서로 재정리해 보고한 뒤 종회에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로회의에서 부의장 명선스님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인사말 직후 사면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며, 행정수반으로서 사면 시행에 대한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전후해 종헌 제128조를 준수하는 선에서 사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불교적 가치관으로 정치할 것”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취임법회

주호영 20대 국회 신임 정각회장 취임법회가 지난 2일 오전7시30분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한 주요 종단 대표, 정각회 소속 의원 및 정관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대 국회 전반기 회장을 맡게 된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취임사에서 “불자 의원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순하여 청정한 마음과 올바른 행동, 바른 말로써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있다”며 “홀통하신 전임 회장님들을 잘 받들고 회원 여

러분의 중의를 잘 모아 나날이 발전하고 신뢰받는 정각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어에서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민족의 평화와 공존에도 정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분별을 버리고 나면 선량(善良)의 자질을 이미 갖춘 여러분은 쉽게 전문성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선택을 바라던 그때의 마음, 국회에 등원하던 첫날의 초심을 계속 지키겠다는 서원으로 임하시면, 부처님의 으뜸가는 제자로서 아무런 손색이 없는 참다

운 불자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주호영 의원은 법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회를 열고 향후 정각회 운영방향에 대해 밝혔다. 무엇보다 “매월 한 번씩 큰스님을 초청해 법문을 듣는 정기법회 방식을 공(公), 윤회 등 주제별 경전공부모임으로 전환해 정각회 소속 의원들이 불교적인 가치관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 “청와대 불자회, 조계종 중앙신도회, 공무원불자연합회, 국군불교충신도회 등 유관 신행단체와도 활발하게 연대해 외연을 넓히겠다”며 불자네트워크 강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끊이지 않는 아프리카 대학 후원 열기

아름다운동행의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 대학에 대한 후원 열기가 뜨겁다.

서울 화계사는 지난 8월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화계사 신도회가 경내 마당에서 커피 노점을 운영하며 2년여 동안 모은 수익금 등으로 조성돼 의미를 더했다.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은 “신도들이 때마다 마당에서 임시 판매대를 설치하고 한 잔에 1000원에서 2000원하는 커피와 차 등을 판매해 모은 돈”이라며 “종단에서 세우는 아프리카 학교가 좋은 시작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공작기계 제조업체 (주)대성하이텍도 2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최우각



지난 8월31일 화계사의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후원기금 전달식.

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박경숙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장은 “직장직능전법단 회원인 최우각 대표가 종단에서 애써 세우는 아프리카 학교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화계사, 대성하이텍, 사찰문화재연구원 명 스님 등…3일만에 5500만원

이틀 뒤인 지난 2일에는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소장 이수예)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며 정성을 보냈다. 이같은 후원 열기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스님과 신도들이 종단에서 건립하는 학교에 관심을 갖고 정성을 보태줘 고맙다”며 “모두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길 기도하겠다”고 감사 인사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30일에는 익명의 스님들이 아름다운동행에 아프리카 학교 지원 및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지원금으로 3000만원의 기금을 전해오기도 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종단 소속으로 알려진 익명의 스님들은 아프리카 학교 지원과 총본산 성역화 불사에 써달라며 각각 1500만원의 기금을 지정 기탁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8월31일 총무회의)



종오스님
청도 성지암



일원스님
해남 두륜사



현종스님
서울 보현사



구하스님
대구 불광사



혜수스님
울산 영축사



종천스님
경주 연지암



도모스님
함양 보림사



정견스님
함양 도솔암



본명스님
울산 등룡사

제32회 금강산 법기문중 총회

귀의 삼보하옵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문중 어른스님을 포함한 여러 스님들께서도 법채 청안하셨습니다?

제32회 법기문중 정기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법기문중 도제와 도반 스님들께 두루 연락하시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법기문중 회장 합장

특별강의

9월 26일 오후 3시

·주제: 종교의 위기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포교 전략 및 방안 모색
김응철 박사(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주제: 걷기와 운동과학
권기욱 박사

- 일 시 불기2560(2016)년 9월 26일 (음력 8. 26. 월)
오후 2시 접수 시작
- 장 소 한국문화연수원 (041-841-5050)
신주소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1065
구주소 : 사곡면 운암리 604
- 총회문의 010-8776-6152(소임자 : 천조스님)
(공주터미널에서 1시, 1시30분 - 2회 셔틀운행)

※방사와 공양 예약 건으로 미리 참석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